이 책은

주님을 사랑하고

정직한 양심으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누가 **그날**을 **거룩하다** 했는가?

Who Dares To Call That Day Sacred?

지금 개신교회는 천주십계를 지키고 있다

앤드류 강

마지막사명

안식일 시리즈 1편을 내면서...

Who Dares To Call That Day Sacred?

1986년,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을까? 미국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당시 미국에 간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성공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갖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달랐습니다.

대학원에서 '문화'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교수님께 내주신 과제가 자신이 믿는 '종교와 신'에 대해서 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과제를 준비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느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주장: "안식일(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예배일이므로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에 예배드린다."

유대인들의 주장 :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일요일 예배는 없다.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 서기 500년 이후까지 안식일(토요일) 예배를 드렸다."

그 당시 저는 믿는 신과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을 재미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면, 안식일이 언제까지 지켜졌는지 역사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학교 도서관에 가서 안식일에 대한 자료를 백과사전과 권위 있는 책들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때부터 1년 후에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기독교회 예배일에 대한 진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에서 확인했고, 둘째는 역사적 자료로 확인했고, 셋째는 개신교회가 나타나기 천년 전에 시작된 천주교회의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가지 모두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안식일 시리즈 두 권의 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예배일의 진리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앤드류 강 드림

목 차

권두언 ····· 4

1부

사탄이 위조한 **하나님의 계명** ····· 9

2부

안식일에 대한 **16가지 질문** ····· 39

질문 1.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날에 예배드렸습니까?
일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 44

질문 2. 성경이 말하는 "주의 날"(계 1:10)은 일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 50

질문 3.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 52

질문 4. 십자가에서 안식일 계명이 폐지되었는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 54

질문 5. 세계적으로 지역마다 안식일 시간이 다른데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 63

질문 6. 수요일이나 일요일에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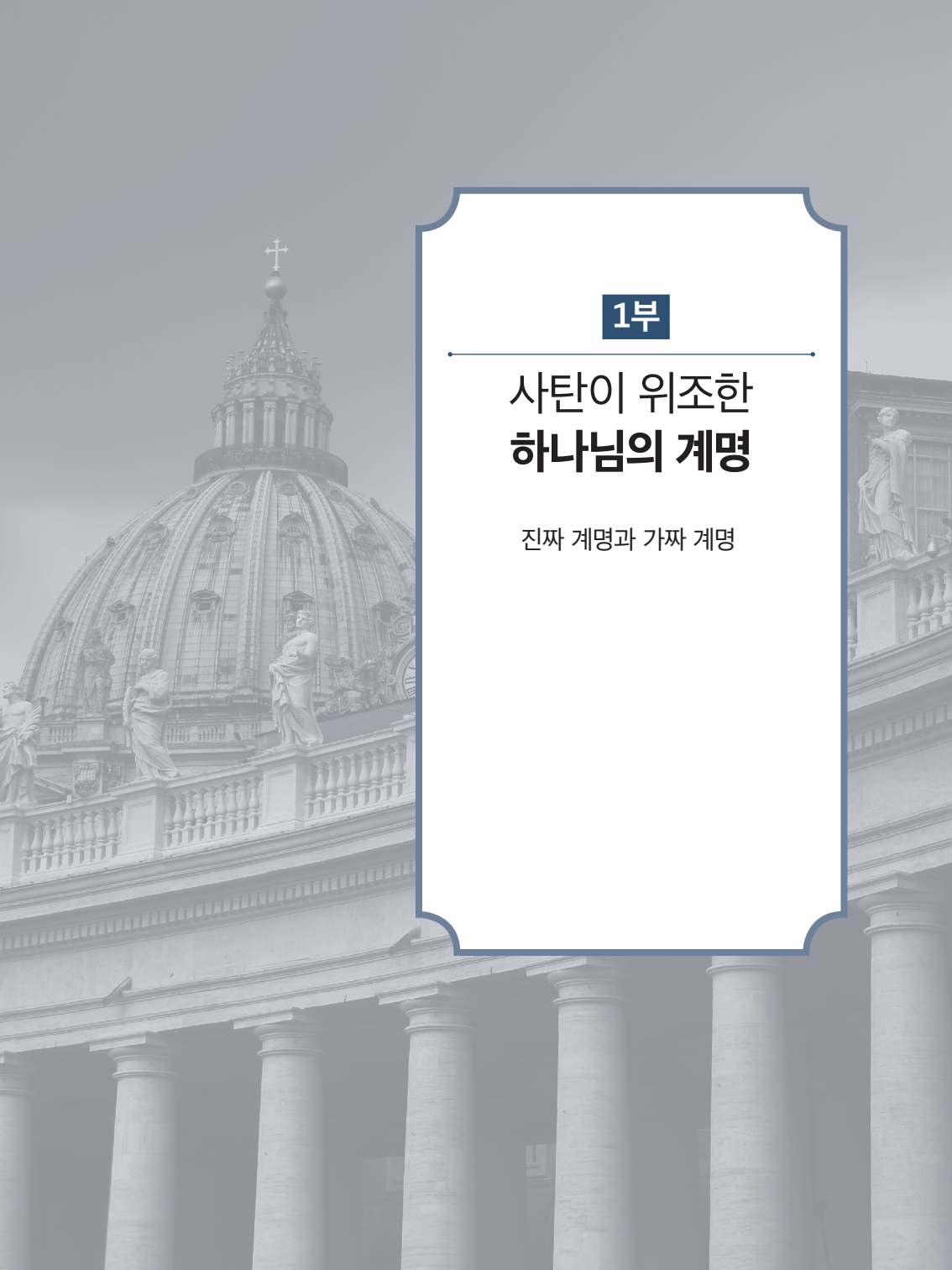
질문 7. 성경의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 74

질문 8. 구약시대는 문자적으로 계명을 지켰지만,
신약시대는 영적으로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 77

질문 9. 일주일 전체가 나에게는 안식일인데,
구태여 정해진 요일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79
질문 10.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눅 16:16)라는 말씀처럼,
침례 요한 이후에는 율법이 폐지된 것 아닙니까? …… 82
질문 11. 사도 바울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골 2:16)고 했으므로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따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84
Do you know? - 1. 로마서 14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 90
- 2. 갈라디아서 4장 10절의 의미 …… 97
질문 12.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지,
구태여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 100
질문 13. 제칠일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 104
질문 14. 에덴동산에서 주어진 안식일이
지금의 토요일과 같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112
질문 15. 기독교회 속에 똑똑한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 117
질문 16. 과거에 안식일을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모두 멸망당하게 되나요? …… 124

부록

안식일에 대한 각 교파의 **견해** 그리고
백과사전과 **역사적 고찰** …… 129



1부

사탄이 위조한 **하나님의 계명**

진짜 계명과 가짜 계명

1부
사탄이 위조한 **하나님의 계명**

진짜 계명과 가짜 계명

기독교회 안에 사탄이 위조한 가짜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진짜 계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이 위조한 계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운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계명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성도들을 말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용(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계 12:17)

마지막 시대에 용(사탄)이 미워하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싸우려고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도 나옵니다. 하늘 예루살렘성을 들어가는 성도들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계 22:14, 킹제임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말할 때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시대에 주의 백성을 말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 기독교회가 지키는 십계명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두 십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1부에서 여러분은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환난 때도 요한계시록은 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1~12)

마지막 환난이 일어날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회가 지키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돌비에 기록하신 원래의 계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지키는 십계명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지키던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던 그 십계명이 아니고, 초대 교회가 지켰던 십계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회가 지키는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천주십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중세기에 천주십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개신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아니라 천주십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중세기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천주교회의 등장

로마제국은 3백 년 동안 초대 교회 성도들을 가난과 죽음으로 극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로마황제의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신앙의 불길은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사탄은 기독교회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기와 돈과 명예를 기독교회에 쏟아부었습니다.

서기 313년, 태양신을 믿던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갑자기 기독교인으로 개

종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개종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첫 번째 기독교인 로마 군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치세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313년 밀라노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여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사실상 정식 종교로 공인했다."(위키백과 사전)

3백 년 동안 로마황제의 핍박을 받던 기독교회가 갑자기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태양신을 믿던 로마황제가 왜 기독교회로 개종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불안해졌고,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태양신교를 믿던 로마황제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기독교회로 개종하자, 그때까지 로마제국를 떠받들고 있던 태양신 교도들은 불만을 터트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감독들은 이전에 희랍과 로마의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존경과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교 의식과 제도를 조금씩 고쳐서 기독교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 개종한 이교도들은 조상 때부터 전래되어 온 의식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과 성자들도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과 같은 방법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이교도들이 좀 더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교도였던 콘

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자, 곳곳에 태양신전과 유사한 거대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교회마다 여러 가지 그림들과 조각된 우상들로 단장함으로써, 외관상으로나 내면적으로 이교도들의 신전과 흡사한 것이 되었다."(J. L. Von Mosheim, Ecclesiastical History, I, 369)

"콘스탄티누스황제는 새로 갈아입은 기독교의 의복 속에 이방 종교, 태양신교의 미신적인 액세서리들을 달고 다녔다(그 당시 로마제국의 종교는 태양신교). 그의 기독교는 혼합물이었다. 콘스탄티누스는 〈하나의 제국(One Empire), 하나의 법(One Law), 하나의 시민(One Citizen), 하나의 종교(One Religion)〉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는데, 그가 기독교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동기에서 종교를 이용한 것이었다. 콘스탄티누스는 성경 말씀이나 영적인 진리에는 어두운 인물이었다."(굿뉴스 데일리 기독교신문, 2013. 3. 8)

로마황제가 개종하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황제를 따라서 수많은 태양신도들이 기독교회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황제를 보면서 불평하는 태양신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서기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태양신 교도들의 불만을 억제하고 그들이 기독교인들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양신교의 지도자, 율리우스 피르마쿠스와 기독교회의 감독 유세비우스를 불러서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은 **태양신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제3의 종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종교가 천주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의 시작과 함께 엄청난 배도가 일어났습

니다.

그 당시 상황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감탄하고 있다.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의식들을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렸다. 태양신교와 기독교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혼합 종교를 만들어냈다."(다빈치코드 1권, 351~353)

"교회 감독인 유세비우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신학을 태양신의 이교적인 이념과 로마황제 이념으로 짜맞추어 기독교적으로 변형시켰다."(Hans F. von Campenhausen, 희랍교부 연구, 대한기독교 출판사, 1977, 93)

태양신교와 기독교를 섞은 혼합 종교가 바로 천주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 속에 지금도 성경에 없는 수많은 행습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주교회가 시작되면서 에덴동산 이후 4천 년 이상 지켜왔던 안식일 계명이 무너졌습니다.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엄청난 배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시작된 안식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창 2:1~3)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예배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주신 예배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안식일이 십계명에도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8~11)

예수께서 지키신 안식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눅 4:16)

십자가 이후에도 바울이 지킨 안식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행 17:2)

일요일 예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 300년 이상 기독교인들은 제칠일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드렸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선포한 일요일 휴업령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1년 3월 7일, 일요일 휴업령을 내림으로써 본격적으로 태양신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을 연합시키려고 했습니다. 영국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이 사건을 정확히 지목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요일 준수를 위해 최초로 법을 제정하고 로마제국 전체에서 이를 규칙적으로 기념할 것을 명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였다."(영국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매일종교신문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321년 3월 7일, 콘스탄티누스황제가 선포한 일요일 휴업령은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시발점이었다. 이 법령을 통해 로마제국 내 2대 종파, 즉 태양신 아폴로를 숭배하는 이교도들과 또 다른 태양과 같은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리스도교인들을 일요일(Dies Solis)로 묶어 단일 종교로 융합해보려는 야심적인 종교 정책을 시도했다.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 콘스탄티누스 황제 자신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것을 선포했으나, 이는 세상을 속이기 위한 술책의 개종이었다."(매일종교신문, 2014. 6. 12.)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일요일 예배로 태양신교도와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옥스포드 대학 희랍어과 교수인 길버트 머레이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양신교는 로마황제를 신의 은총을 받은 자로 인정했다. 태양신교는 그들의 신자들이 많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자, 안식일 대신에 그들의 태양일을 준수하자고 기독교계에 압력을 가할 수 있었으며, 태양의 출생일인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준수하자고 주장할 수 있었다."(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Light of Modern Knowledge)

이것이 배도의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것은 십계명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십계명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이 태양신의 경배일인 일요일로 바뀌었고, 태양신의 탄생일이 아기 예수의 탄생일로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역사가 안식일의 변경과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배도가 천주교회의 시작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배도의 역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일요일에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개신교회의 주일 예배, 성서적인가?

중세기에 천주교회는 종교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배도를 교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343년 사르디카 종교회의의 결정: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부활의 날이란 미명 아래 일요일 신성론을 부가시키면서 주의 날(Lord's Day)로 개칭하고 교역자가 여행으로 주의 날을 세 번 범하면 제명시킬 것을 종규 제11조에 명시하도록 의결했다.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서기 343년, 천주교회의 사르디카 종교회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의 날(Lord's Day)은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은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기록된 제칠일 안식일인 토요일입니다(눅 6:5). 그러나 천주교회는 "일요일은 주의 날이고,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다"라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을 혼돈과 암흑으로 끌고 갔습니다.

364년, 천주교회는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예배일로 성별하고, 그때부터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을 출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364년 라오디게아(Laodicea) 총회: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성별하는 법규를 의결했다. 이 총회에 의결된 종규 제29조는 다음과 같다. "주의 날(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과 같이 안식일을 준수한 사실이 판명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Charles Joseph Hefele, P.316. in SDAVC. Vol.I.p.784. cf.J.Hardoui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ouncils. Vol.I. P.784 in Frank H.yost.P.49)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배도의 역사입니다. 중세기 라오디게아 총회부터 안식일을 십계명대로 지키는 성도들이 출교당하고 이단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논문에도 안식일 계명이 수백 년 동안 준수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칠일 안식일은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안식일 준수를 폐지할 때까지 그리스도, 사도들 그리고 초대 교회들에 의해 엄숙히 준수되었다." (Dissertation on the Lord's Day, 33, 34)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리스도, 사도들과 제자들, 초대 교회 교인들은 모두 서기 364년까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서기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안식일을 폐지하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기독교회는 안식일을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기록된 대로 토요일로 준수했다는 증거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일요일 성수론은 거짓입니다. '십자가 이후엔 부활을 기념하기로 했다. 십자가 이후에는 일요일에 예배드리기로 했다.'는 말들은 모두 성경과 역사적 증거를 뒤집은 거짓입니다. 역사는 초대 교회가 시작되고 3백 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성수했으며,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배도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왜 십계명을 공격할까요?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사람이 기록한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비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돌비에 기록하셔서 그것을 성소의 지성소 법궤 안에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법궤 위에 쉐키나 영광으로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떠받치고 있는 법궤 안에 십계명을 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를 인정하고 충성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십계명을 공격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가야 할 충성을 자신이 받기 위해서 넷째 계명 자리에 태양신의 경배일(일요일, Sunday)을 넣고 경배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계략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입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sign)을 삼았노라"(겔 20:12)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sign)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겔 20:20)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징,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입니다.

십계명에서 넷째 계명은 기독교 신앙을 이 세상 모든 종교와 구별하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와 같은 계명은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드리라"는 계명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표시가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안식일 계명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보아야 합니다.

천주교회는 넷째 계명을 바꾼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놀라운 사실은, 천주교회는 그들이 넷째 계명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담하게 "우리가 안식일을 바꾸었다"고 선포합니다.

"카톨릭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킨 후 십계명에서 넷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명하였다."(카톨릭 백과사전, 4권 153)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AD 321년 3월 7일 첫째 날, 일요일을 태양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을 기독교회의 예배일이자 공휴일로 정한 뒤 일곱째 날은 토요일로 명명하는 칙령을 내렸다. 첫째 날(일요일)을 '태양의 날'이자 공휴일로 정한 것은 그 당시 로마의 대다수를 차지한 태양신교도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다.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을 예배일로 지켜오던 유대인들과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에 반대했지만 교회 지도자들과 미트라교도(태양신교도) 등 대다수 사람들은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일요일을 지키기 시작했다."(2003년 11월 30일 자, 한국일보기사)

얼마나 분명합니까? 정직한 성도라면 안식일에 대한 배도의 역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인터넷과 백과사전, 세상 신문과 학자들이 모두 중세기에 넷째 계명이 변경되었다고 증거하고 있고, 천주교회에서는 자신들이 십계명을 바꾸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는 천주교회가 만들어낸 날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상당수의 개신교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중세기에 예배일이 바뀐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신학자와 성직자는 중세기 배도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침례교회 신학자인 에드워드 히콕스 박사(Edward Hicox)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축제일인 이교도들의 표상인 일요일이 교황과 카톨릭의 배도로 인해서 승인을 받아 개신교회의 거룩한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천주교회의 기만과 속임수

카톨릭교회는 중세기에 자신들이 저지른 배도를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왜 이런 엄청난 배도를 부끄러워하지도, 감추려 하지도 않을까요?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성경 진리를 바꿀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서운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카톨릭 백과사전에서 천주교회는 자신들의 믿음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교황들)은 교훈이나 금지에 관한 율법을 추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고, 아울러 이러한 율법들로부터 면제해주는 권세도 있고, 필요하다면 폐지시키는 권세도 있다. ... 이러한 사법상의 권한은 심지어 죄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하고 있다."(Pope,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XII, 265, col. 2)

얼마나 무서운 정신입니까? 천주교회는 이런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폐하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며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십계를 따른다는 것은 천주교회의 이런 정신과 교리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양심을 가진 성도라면, 태양신의 경배일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가, 위조된 계명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안식일은 일요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요일에 예배드렸다고 주장하며, 안식일을 지키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은 성경과 역사와 천주교회의 증언들을 부정하고 천주십계를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열두 제자, 사도들, 초대 교회는 첫 3백 년 동안 제칠일 안식일 토요일을 예배일로 지켰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가장 오래된 교회인 천주교회 스스로가 자신들이 넷째 계명을 바꾸었다고 말하는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개신교회가 나타나기 천년 전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카톨릭교회는 <미러지>에서 그들이 예배일 변경한 일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카톨릭교회는 개신교회가 존재하기 약 1,000년 이상 전에 그날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미러, 1894. 9. 23.)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개신교회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천주교회가 예배일을 바꾸었고, 개신교회는 천주교회가 십계명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고 만든 천주십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천주교회의 교리문답서 50페이지에서도 넷째 계명의 변경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배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질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질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변: 카톨릭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회심자를 위한 카롤릭교리문답서, 50)

어떤 면에서 천주교회는 정직합니다. 천주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킬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태양신 예배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다음은 천주교회의 사제서한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교회는 말하기를 -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카톨릭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사제서한집, 1893. 6. 1.)

이제 진실을 올바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개신교회는 사탄이 만든 위조된 계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리를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마 15:8~9). 사람이 만든 가짜 계명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지 사람의 계명을 따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천주십계가 세워지게 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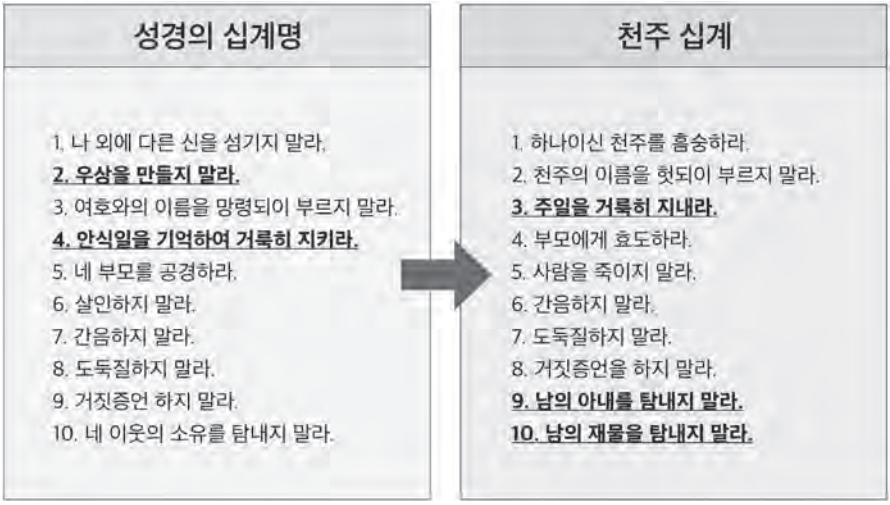
로마황제는 태양신교와 기독교를 혼합시켰습니다. 그래서 태양신교에서 섬기던 우상들이 기독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감독들은 이전에 희랍과 로마의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존경과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교 의식과 제도를 조금씩 고쳐서 기독교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인으로 새로 개종한 태양신교도들은 조상 때부터 전래되어 온 의식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과 성자들도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 신과 같은 방법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이교도들이 좀 더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교도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자, 곳곳에 태양신전과 유사한 거대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교회마다 여러 가지 그림들과 조각된 우상들로 단장함으로써, 외관상으로나 내면적으로 이교도들의 신전과 흡사한 것이 되었다."(J. L. Von Mosheim, Ecclesiastical History, I, 369)

지금은 유럽에 있는 천주교회 성당들이 관광상품이 되었지만, 그것은 중세기에 둘째 계명이 무너진 배도의 증거입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수백 년 동안 없었던 우상들이 중세기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태양신교의 우상을 있는 그대로 들여오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반발할 것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교의 우상을 들여오되, 이름을 베드로상, 바울상, 마리아상, 그리고 죽은 순교자들의 이름으로 바꿔서 교회 안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둘째 계명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주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너뜨리고 천주십계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에서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넷째 계명을 일요일로 바꾼 천주십계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인간의 계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어떤 예배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십계명에 기록된 제칠일 안식일입니까? 아니면 천주십계에서 말하는 일요일입니까? 천주십계에서 말하는 일요일은 사탄이 만든 위조된 넷째 계명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둘째 계명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넷째 계명은 여전히 태양신의 경배일인 일요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천주십계를 반대한 "충성된 증인 안디바"

사도 요한의 죽음 이후 적어도 200년 동안 기독교회의 예배일은 제칠일 안식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회 안에 거짓 계명이 들어오자,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거절하는 사람들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황제와 배도한 교회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거짓 계명이 교회 안에 세워지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거짓 계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거짓 계명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하나님의 충성스런 증인, 안디바라고 했습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계 2:13)

안디바는 기독교회에서 계명을 바꾸는 배도가 일어날 때 목숨을 걸고 저항하던 성도들입니다. 안디바(Antipas)는 Anti(대항하다)와 Papas(교회 지도자)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안디바는 그 당시 배도한 교회와 배도한 지도자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를 지키는 견고한 요새와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

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안디바와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용(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계 12:17)

용(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태양신의 경배일에 예배드리는데, 여자의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식일에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를 지키는 안디바의 정신을 이어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자의 남은 무리는 짐승의 표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1~12)

마지막 환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태양신 경배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중세기에 무너진 십계명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충성스런 안디바의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중세기에 시작된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난 성도들입니다.

천년 동안 배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기독교회

중세기 천년 동안 기독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배도에 빠졌습니다. 십계명이 바뀌었고, 죽은 성자를 숭배하기 시작했고, 연옥설이 세워졌습니다. 또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들어왔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연옥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세기 교회에서 돈을 받고 면제부를 파는 부패로 이어지고, 죽은 성자의 유물과 해골을 섬기는 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천주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해골을 싸놓고 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 대신에 세례가 시작되었고 로사리 묵주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의 성만찬 예식이 화체설로 바뀌었습니다. 성모무염시태설이 세워지면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죄와 완전히 단절된 몸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는 거짓 교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진리가 무너졌고,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육신을 가진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라는 진리가 무너졌고, 마리아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세기 천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거짓과 오류가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짓 계명과 거짓 교리가 세워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교회의 배도에 저항하고 진리를 고수하는 성도들이 큰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중세기에 수천만 명이 진리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 교황은 자신이 양심적으로 믿는 신앙 때문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로마교회의 우상숭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서를 높이 쳐들며 죽음도 불사하면서 죄를 대항하여 피로서 항거한 5천만 명의 남녀들을 종교암흑시대 동안에 살상한 것으로 추산된다."(H.G. 게이네쓰, 시대의 임박한 종말, 204)

스페인의 종교재판에서는 31,912명의 성도들이 화형을 당했고, 알비젠스인들의 대학살에서는 백만 명이 죽었으며, 제수이트 제도의 창설 이래 90만 명이 살해되었고, 네덜란드에서는 36,000명이 사형당했으며, 찰스 5세의 치하에서는 5만 명의 프랑스인들과 독일사람들이 교수형을 당해 산 채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순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중세기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종들이었습니다. 중세기에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배도한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태양신과 행음했다"고 설교했습니다. 교인들에게 거짓 복음과 거짓 계명의 기만을 보여주었고, 성경의 진리로 인도했습니다.

중세기에 엄청난 배도가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의 배도를 보면서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양심의 음성을 죽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기 교회에서 천년 이상 진리가 선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세기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충성하는 성도들을 알프스 깊은 산으로 피신시켜서 광야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 여자(여자의 남은 무리)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1,260년,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계 12:6)

중세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 교회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럽 대도시 천주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이단이라는 이유로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시고 "그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이다"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해서 나가야 할까요? 진리와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광야 교회입니까? 아니면 천주교회의 태양신을 경배하는 모습이 남아있는 교회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 5:3)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순종하기로 뜻을 정할 것입니다.

맺는 말씀

얼마 전에 마지막사명 선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바이블칼리지에서 공부하신 장로교회 목회자가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왔습니다.

"앤드류 강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했으며 장로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2020년 3월 어느 날, 유튜브에서 마지막사명의 설교를 처음 듣고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던 중 마지막사명의 예언학교를 졸업하고 바이블칼리지에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안식일과 주일이 다른 줄 몰랐는데, '주일이 안식일이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대불변의 십계명을 성직자들이 마음대로 고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천주십계의 주일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설사 교단에서 제명처분을 받고 설사 이단이라고 정죄받는다고 할지라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칠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힘 닿는 데까지 증거하겠습니다. 미약하지만 마지막사명을 이끄시는 앤드류 강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김00 목사 드림"

지금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신앙을 할 때입니다. 뜨뜻미지근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목숨을 걸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면서 교황이 십계명을 바꾼 사실을 밝혔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에 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2, P291, 256)

루터 교회의 시조인 마틴 루터, 장로교회를 세운 요한 칼빈 그리고 감리교회를 세운 요한 웨슬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교황과 바티칸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핍박의 세력, 적그리스도로 지목했습니다. 그 결과 천주교회로부터 엄청난 반대와 핍박이 일어났지만,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전파한 '오직 성경'의 신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신앙이 밀물처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지지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프로테스탄트'(Protestants)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입니까?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저항한다는 것인가요? '교황의 교리와 가르침에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나중에 개신교회의 영문 이름, Protestant church가 된 것입니다.

슬픈 사실은 오늘날 개신교회가 우리의 선구자들이 갖고 있던 믿음과 예언적

이해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번에 마지막사명에서 발간한 두 권의 책자가 한국 개신교회에게 분명한 빛을 제시해주고, 많은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길 소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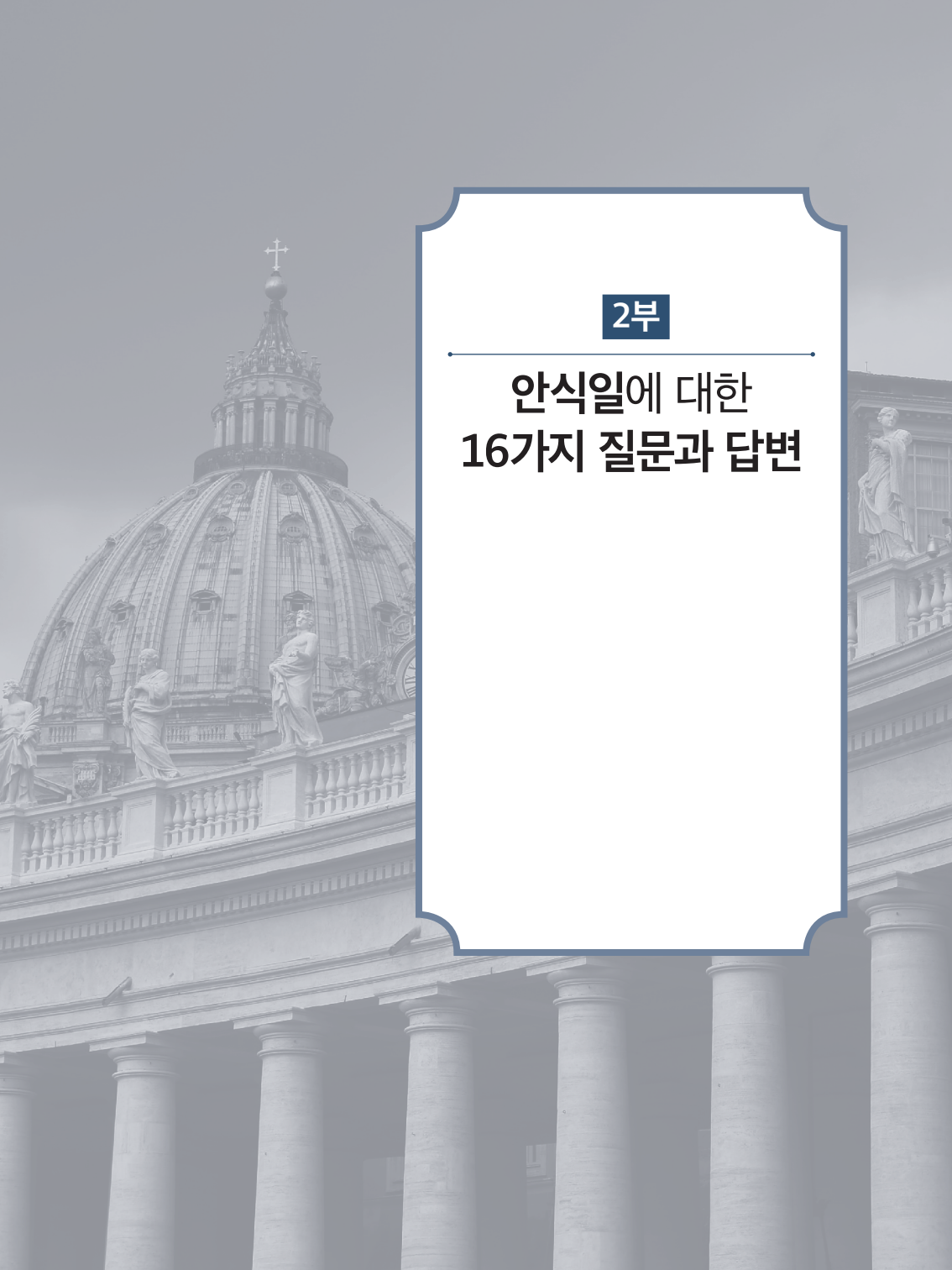
2부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16가지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디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에 들어온 어둠의 역사>

십자가 — 재림

AD 31년 | AD 101년 | AD 313년 | AD 538년 | 16세기 초기 | 세상 끝

시대	사도 시대	핍박과 순교 시대	세속화와 타협의 시대	종교 암흑시대 성도들은 광야로 피신함	종교개혁운동~현재
교회의 상태	가장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었던 교회	2세기에 걸친 로마의 박해 기간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인정한 후 타협과 세속화가 시작됨.	이교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시대	중세기의 배도에서 벗어나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함. 지금도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말씀과 계명을 회복시켜야 함.
기독교회에 들어온 어둠의 역사			· 죽은 성자들을 숭배하기 시작함. · 서방의 교회들이 십계명을 변경함.	· 연옥설 · 마리아 숭배 ·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 · 침례 대신에 세례가 허용됨. · 로사리라는 묵주기도 시작. · 면죄부 판매 · 화체설 · 영혼불멸을 교리로 확정. · 성모무염시태설 · 고해성사 · 각종 성상과 유물 숭배 · 제칠일 안식일(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킴.	



2부

안식일에 대한 16가지 질문과 답변

2부
안식일에 대한 16가지 질문과 답변

미국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위치한 세인트 알폰서스 천주교회의 감독인 T. 엔라이트 신부가 지역신문에 안식일에 대하여 1,000불의 보상금을 걸고 충격적인 광고를 냈습니다. 그 신문광고가 나가자 세인트 루이스 지역에 사는 교인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지역사회 여러분, 본인은 천주교회의 신부로서 성경에서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발견하는 분께 1,000불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제의를 해왔습니다. 교회에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교리를 세운 것은 천주교회였습니다. 천주교회가 중세기에 예배일에 대한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일요일 예배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천주교회에게 사람의 양심을 구속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

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부디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 분들이 연락주시면 기꺼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 시에서 이 신문광고가 나간 후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한동안 소요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T. 엔라이트 신부로부터 상금 1,000불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도시에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일요일 예배에 대한 성서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지금도 공식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일은 토요일이지만, 천주교회가 예배일을 제칠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회의 예배일은 천주교회에 의해서 서기 4세기경에 변경된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2003년, 한국일보는 천주교회가 기독교회의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AD 321년 3월 7일 첫째 날, 일요일을 태양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을 기독교회의 예배일이자 공휴일로 정한 뒤 일곱째 날은 토요일로 명명하는 칙령을 내렸다. 주일 중 첫째 날(일요일)을 '태양의 날'이자 공휴일로 정한 것은 그 당시 로마의 대다수를 차지한 태양신교도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다.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을 예배일로 지켜오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이에 반대했지만 교회 지도자들과 미트라교도(태양신교도) 등 대다수 사람들은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일요일을 지키기 시작했다."(2003년 11월 30일 자, 한국일보)

세상 신문도 기독교 예배일이 바뀐 배경과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한 천주교회의 공식 입장을 살펴볼까요?

"카톨릭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킨 후 십계명에서 넷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명하였다."(카톨릭 백과사전 4권, 153)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교회는 말하기를 -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카톨릭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천주교회의 사제서한집, 1893년 6월 1일 발행)

천주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천주교회의 권위로 변경했다고 대담하게 주장합니다. 천주교회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천주교회의 천주십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신교회가 중세기에 천주십계로 정해진 일요일 예배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에서는 명백한 증거와 자료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의 일요일 예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는 제칠일 안식일(넷째 계명)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과 질문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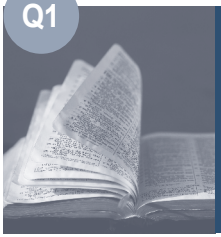
유대인의 안식일인가? 인류의 안식일인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시작한 날이 아니라 에덴동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구와 인간의 창조를 마치신 후,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선포하셨고 그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창 2:1~3)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위해 주신 날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 전체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유대민족이 지구에 형성되기 수천 년 전에 안식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은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지켜져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과 초대 교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안식일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오해와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일 중 첫날, 일요일에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초대 교회는 일요일에 예배드린 것이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열두 제자들과 초대 교회는 처음부터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약성경에 일요일, 즉 주일 중 첫날이 언급된 성경절을 제시합니다. 사실, 사복음서에 일요일에 대한 언급이 여덟 번 나오는데 그중에서 일요일 예배와 관련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일요일 예배의 증거로 제시되는 성경절들을 살펴보면 초대 교회부터 예배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 교회가 일요일에 예배드렸다는 증거로 요한복음 20장과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제시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20:19)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을 뜻합니다. 안식일은 제칠일 곧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일요일(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한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일요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저녁에 모인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예수께서 허망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고, 공포와 의심이 그들을 태산처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드렸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 기독교회가 이런 말씀을 일요일 예배의 기원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상합니다. 너무나 빈약한 주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칠일 안식일 예배가 중요하다면, 왜 사복음서에는 토요일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지 않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4천 년 동안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제칠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초대 교회 제자들과 성도들도 모두 제칠일 토요일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의 제자들은 제칠일 토요일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십자가 전이나 후에 일요일에 예

배드렸다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굉장한 공격을 했을 것이고 신약성경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충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요일 예배는 천주교회가 태양신의 예배일을 받아들였던 4세기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300년 동안 토요일에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일요일 예배의 증거로 많이 사용되는 또 하나의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전 16:2)

여기에 나오는 "주일 첫날"도 일요일을 뜻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일요일이 나온다고 해서 제자들이 넷째 계명을 폐지하고, 일요일을 정기적인 예배일로 지켰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그들이 모였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사도 바울이 일주일의 첫날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거두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교회로 오기 전에 돈을 미리 저축해두려고 모인 것입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그 당시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안식일에 돈을 걷고 계산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만나서 돈을 모으고 저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교인들은 돈을 모으고 저축했을까요? 이어지는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고전 16:3)

사도 바울은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에 돈을 모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설렘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매주 일요일마다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저축해놓은 돈을 가리켜서 바울은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교인들이 일요일마다 돈을 모았다가 바울이 방문했을 때 주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덴동산 이후 4천 년 이상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제칠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돌비의 넷째 계명에 "제칠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성경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일 중 첫날에 …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라는 말씀으로 "제칠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넷째 계명을 폐지시키고 새로운 일요일 예배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논리는 너무나 궁색하고 어색한 논리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주일 중 첫날에 성도들이 모였던 몇몇 상황이 대부분 이런 종

류의 말씀입니다. 일요일에 예배가 아닌 다른 이유로 모였거나 일요일 저녁에 모인 것을 갖고 일요일 예배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빈약한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안식일 예배를 일요일로 바꾸었다면, 그 문제는 초대 교회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에서 그런 투쟁의 흔적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신약성경에서 주일 첫날에 모인 유일한 증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행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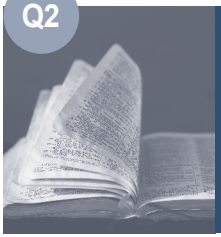
이 말씀을 보면 일요일에 모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모였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라고 모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일요일)에 집회가 소집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던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일요일 집회가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인 일요일 예배인지 아니면 단순히 바울이 다음 날 떠나기 때문에 일요일에 임시로 모였던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문맥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말씀만으로는 그 집회를 정기적인 일요일 예배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다음 날 바울이 떠나기 때문에' 모였다고 그 집회의 목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의 저명한

교회사학자 아우구스투스 네안더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은 일요일 준수에 대하여 전적인 설득력을 가진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떠날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가 형제애를 나누는 고별 식사로 모였을 것이며, 일요일을 특별히 기념할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모여서 사도가 마지막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다." (The History of the Christian Religion and Church, tr. Henry John Rose, vol. 1, 337)

"제칠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일요일로 바꾸려면, 그것에 걸맞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런 증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한 곳이 없으며 제자들이 일요일을 지켰다는 증거 역시 없습니다.



Q2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씀은 그가 일요일에 예배드렸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주의 날" 또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의 날"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Lord's day)"은 어떤 날일까요? 신약성경에서 주의 날은 제칠일 안식일(토요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의 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 12:8)

예수님은 일요일의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주의 날(주님의 날)이란, 예수께서 주인이 되는 날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서기 95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주의 날(Lord's Day)로 부르는 행습이 시작된 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때보다 훨씬 나중입니다. 일요일 예배 행습은 12제자 중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사

도 요한이 죽은 후 200년 이상이 지난 후에 태양신교의 예배일(태양의 날, Sunday, 일요일)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당시에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일요일을 뜻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Q3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요일 예배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시작된 제칠일 안식일 예배는 초대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식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만찬 예식과 침례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고 침례는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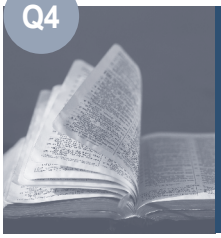
주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성만

찬 예식으로써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성만찬 예식에서 쪼개진 빵과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이 사용되는 이유는 주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기념해야 할까요?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롬 6:4~5)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고 기념하려면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침례를 통해서 물 무덤에 장사된 사람은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날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침례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요일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올바로 기념하기 원한다면, 침례의식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해야 합니다. 물방울을 뿌리는 세례 대신에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침례야말로 무덤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서적으로 정확하게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Q4 십자가에서 안식일 계명이 폐지되었는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십자가 이후부터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이 질문은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게 다루어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십자가에서 계명이 폐지되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법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폐지된 법이 있고, 십자가에서 완전케 된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폐지된 법은 어떤 법이고 완전케 된 법은 어떤 법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막 15:37~38)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한 손이 유대인의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왜 성소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The Life of Jesus>라는 책의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는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큰 부르짖음이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왔을 때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 서서 희생제물인 어린양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죽이려고 칼을 들자 땅이 진동하였다. 제사장은 놀라서 칼을 떨어뜨리고 어린양은 도망을 쳤다. 지진과 천둥의 소음 속에서 성전예식에 참여한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요란한 소리를 들었다. 그 바로 같은 시간, 유월절 양이신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신 채 운명하셨다. 드디어 동물의 희생제도라는 표상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여러 세기를 통해 성전의 봉사가 가리켜온 바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께서는 희생제물로서의 인류를 위한 속죄를 완성하셨다. 이제 표상이 실체와 만났기 때문에 이 희생을 예표하는 모든 의식들은 폐지되었다. 그래서 휘장은 찢어지고 칼이 떨어졌으며 어린양이 도망친 것이다."(The Life of Jesus, 756)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이유와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제도의 종말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을 두 조각으로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유대인의 성소에서 행했던 동물의 희생제도가 종말을 고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왜 동물의 피를 필요 없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어린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인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흘려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

해서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하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소와 관련된 구약시대의 율법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시대 모세가 제사제도에 대해서 기록한 "의문의 율법과 증서"를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상하던 지상 성소 의식과 동물의 제사가 십자가 이후에는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골 2:14)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앤 법은 어떤 법이라고 했습니까? "의문에 쓴 증서"라고 했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란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각종 제사와 의식에 대해서 기록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4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던 성소와 동물 제사에 대한 의문의 증서와 법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엡 2:15)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육체로 폐지시킨 법이 어떤 법이라고 했습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가 성소제도에 대해서 기록한 의문에 속한 율법은 필요 없어졌고,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법으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비에 직접 쓰신 법입니다. 십계명의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할 법이고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중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지켜야 할 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십계명을 읽어보십시오. 십계명은 성소제도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 보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시대 만들어진 모세가 기록한 법입니다. 모세는 절기들과 성소 의식에 관한 의식법(Ceremonial Law)을 두루마기에 기록했습니다. 의식법에는 할례와 양을 잡는 법과 제사장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의식법은 십계명을 보관한 법궤 옆에 두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고 선포한 의문의 증서와 의문의 율법은 어떤 법입니까? 의문의 증서, 의문의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의식법을 뜻합니다. 십계명과 의문의 율법은 서로 전혀 다른 종류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폐해졌다고 한 "의문에 쓴 증서"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모세가 기록한 두루마리에 기록한 의식법을 뜻합니다. 이 점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십계명	의문의 율법
기록자	하나님	모세
내용	마음과 행위로 지켜야 할 도덕법	제사와 의식법
기록된 곳	두 돌비	두루마리
보관장소	법궤 안	법궤 밖
폐지여부	십자가에서 폐지되지 않음	십가에서 폐지됨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십계명과 의문의 율법이 전혀 다른 법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기 때문에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는 제사제도나 제사장의 의식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십계명을 폐지시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제칠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십자가에서 폐지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영원토록 지켜야 할 법입니다. 십계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넷째 계명(안식일 계명)도 영원한 것입니다.

의문의 율법과 십계명의 차이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식일 계명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계명을 폐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까다로운 조목들을 많이 붙여서 안식일을 무거운 굴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계명의 영원불변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7~18)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안식일 계명의 의미와 목적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계명을 구약시대의 죽은 유물로 취급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

까요?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십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롬 3:31)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은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계명을 굳건하게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폐해졌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불순종과 죄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 계명을 무시해도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십계명 중 어느 하나를 무시하는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제에 있어서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약 2:10)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십계명 중에서 하나를 범하면 나머지 계명들도 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한 계명을 범했는데 나머지 아홉 계

명을 범했다고 했을까요? 이어지는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약 2:10~11)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십계명은 여러 계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계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안식일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간음하는 정신을 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는 십계명 중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짓밟는 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약 2:10)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는 계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질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눅 10:25~28)

"예수께서 이르시되 …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마 19:17)

십계명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십계명 전체에 순종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Q5 지구는 둥글고 지역마다 시차가 존재합니다. 지구의 지역마다 안식일 시간이 다른데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세계 각 지역의 시간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에 미국은 금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까다로운 질문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레 23:3)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레 23:31)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있는 장소의 시간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됩니다. 밤과 낮이 6개월씩인 북극지방이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을지라도,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를 알 수 있으므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에덴동산이 있었던 이스라엘 지역에서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로 가면서 해가 계속해서 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해가 지고, 터키에서 해가 지고, 이탈리아에서 해가 지고, 영국에서 해가 지고, 이렇게 해서 지구 전체가 일주일에 하루 동안 안식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지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서 일곱째

날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구 전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여호와의 안식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세워진 제칠일 안식일이 세상 끝까지 정확하게 이어져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켰던 안식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켰던 안식일,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 지켰던 안식일, 중세기 알프스산 깊은 곳으로 피신했던 성도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도 지키게 됩니다.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깊은 감동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마지막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계 12:17)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자손에 속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항상 새로운 진리와 빛을 접하게 될 때 저항하고 불편해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나오는 자연스런 반응입니다.

예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에너지가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안개처럼 희미하면, 사탄이 교

회 속에 심어놓은 여러 가지 생각과 주장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로 인도해주시고, 마음속에 진리의 확신을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Q6

수요일이나 일요일에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왜 꼭 제칠일 토요일을 예배일로 구별해야 합니까?

이와 비슷한 질문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까? 에덴동산에 있는 다른 과실은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선악과는 안 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 3:1)

사탄은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놓을 기가 막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대답해야 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됩니까?"라는 질문에 붙잡혀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던지는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제칠일 안식일 토요일을 예배일로 삼아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없

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구가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위대한 능력과 지혜 앞에서 미천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까?"라는 질문과 "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면 안 됩니까?"라는 질문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물론, 진리가 정말 무엇인지 알기 위한 질문은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묻는 것은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늘에서도 그런 종류의 질문이 반역으로 이어졌고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시작된 반역의 정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루시퍼[Lucifer]는 사탄의 이름)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하나님)와 비기리라 하도다"(사 14:12~14, 킹제임스)

사탄은 그의 보좌를 높여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에덴동산에 선악과라는 법을 세우자, 사탄은 즉시 하나님

의 법을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왜 다른 과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항상 "왜 안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 두 가지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안식일 계명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법 모두를 공격해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 창조의 마지막 단계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안식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창 2:2~3)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무엇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지구와 인간의 창조를 마치신 다음, 일곱째 날에 안식하면서 그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을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히 3:4)

집마다 준공일이 있고 제품마다 제조일이 있듯이 지구도 창조가 마쳐진 날이 있는데 그날이 제칠일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칠일 안식일을 지구와 인간 창조의 기념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지구의 주인이시며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신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입니다. 제칠일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여 지키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유대인을 위한 예배일이므로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안식일은 유대민족에게 주신 예배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칠일 안식일은 유대민족 12지파가 이 땅에 형성되기 2천 년 훨씬 이전에 에덴동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한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아니며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주신 계명이며 지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예배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안식일을 태양신의 예배일, Sunday(일요일)로 바꿔놓고 "일요일에 예배드리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왜 제칠일 안식일에만 예배드려야 합니까?"라는 질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게 됩니다.

인간이 안식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인간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한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경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일요일 예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안식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안식일을 집요하게 공격해왔습니다. 그런 사탄의 공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안식일 계명이 변경될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단 7:25)

성경은 작은 뿔 세력이 중세기에 "때와 법을 변경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탄이 안식일을 공격해서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습니다.(마지막사명 <바이블칼리지> 강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lastm.net 또는 스마트폰으로 <마지막사명> 앱을 다운받으셔서 꼭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초대 교회를 지나서 중세기까지 준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안식일 계명을 태양신의 경배일인 일요일로 변경시켰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AD 321년 3월 7일 첫째 날, 일요일을 태양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을 기독교회의 예배일이자 공휴일로 정한 뒤 일곱째 날은 토요일로 명명하는 칙령을 내렸다. 주일 중 첫째 날(일요일)을 '태양의 날'이자 공휴일로 정한 것은 그 당시 로마의 대다수를 차지한 태양신교도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다.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을 예배일로 지켜오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이에 반대했지만 교회 지도자들과 미트라교도(태양신교도) 등 대다수 사람들은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일요일을 지키기 시작했다."(2003년 11월 30일 자, 한국일보)

"카톨릭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킨 후 십계명에서 넷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명하였다."(카톨릭 백과사전 4권, 153)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교회는 말하기를 -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카톨릭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천주교회의 사제서한집, 1893년 6월 1일 발행)

이런 엄청난 배도가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사탄은 미혹하는 질문을 성도들에게 던졌습니다. "왜 예배일을 일요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예배일을 일요일로 바꾸면 태양신교도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꼭 제칠일 토요일을 고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유대인을 따라가야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던지는 질문에 미혹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예배드려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제칠일 안식일을 버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던지는 질문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위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입술로만 믿는 신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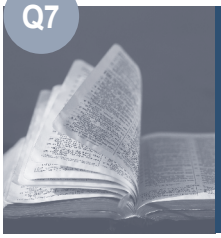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 15:8~9)

무엇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람이 만든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무시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사람이 만든 거짓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일요일에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왜 토요일이여야만 합니까?"라는 질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은 바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딛 1:16)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가증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정신에 대해서 무서운 정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계명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라는 의심과 함께 넓은 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Q7 성경의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은 대개 기독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에 실망해서 교회에 가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의 고민과 좌절을 이해합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했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가정에서 안식일에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안식일은 쉬는 날일 뿐 아니라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레 23:3)

이스라엘은 안식일마다 거룩한 집회를 열었고, 예수께서도 안식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회당에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눅 4:16)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규례대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성경에는 "according His custom"인데, 그 뜻은 '자기 습관대로, 항상 해오던 것처럼'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의 습관대로, 항상 해오던 것처럼' 제칠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셨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만든 온갖 금기사항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밭에서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위에 얹어놓은 무거운 짐과 멍에를 벗겨내시고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뒤집어 씌워놓은 율법주의의 정신을 벗겨내고 참된 행복과 치료의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매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드렸습니다.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셨다"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이후에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십자가 이후에도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여전히 지켰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행 17:2)

얼마나 확실합니까? 바울도 십자가 이후에 여전히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강론했습니다.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씀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행 13:14, 17:1, 2, 18:4, 13:42~44, 행 16:13).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행 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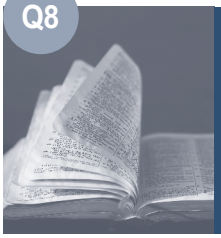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행 18:4)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행 13:42~44)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행 16:13)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몸과 마음이 쉬는 날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죽은 이후에도 200년 이상 제칠일 안식일은 정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Q8



구약시대는 문자적으로 계명을 지켰지만, 신약시대는 영적으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안식년과 희년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영적으로 들리는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영적인 말은 무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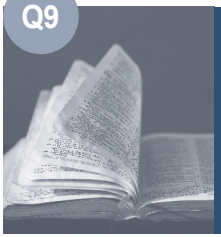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명은 영적으로 지켜야지 구약시대처럼 문자적으로 지키면 율법주의가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십계명은 문자적으로만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문자적인 뜻뿐 아니라 마음에 우상을 품지 말라는 영적인 뜻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육체적 간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거짓 교리를 섞는 영적 간음도 포함하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정신적인 간음의 의미도 포함합니다.

안식일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영적인 쉼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자적으로 "제칠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은 문자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께서도 문자적으로 제칠일 안식일을 구별하고 지키셨으며, 또한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키셨고, 치료와 생명의 날로도 지키셨습니다. 예수께서 지키신 안식일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

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고 말한 의문의 율법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규례나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만든 수많은 금기사항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제칠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넷째 계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사제도나 절기나 희년이나 안식년과 같은 것들은 모세가 기록한 의문에 속한 율법이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문의 율법들은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고 했습니다(골 2:14, 엡 2:15). 그러므로 "제칠일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년과 희년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십계명과 의문의 율법이 전혀 다른 법이라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게 되는 주장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십계명의 나머지 아홉 계명에 대해서 말하면 반대하거나 이견을 말하지 않는데,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말하면 많은 반대들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유대인의 율법주의로 몰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Q9

나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나에게는 일주일 전체가 안식일이고 거룩한 날인데 구태여 토요일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요일에 일하고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흥미있는 사실은, 구약시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계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민 15:32)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토요일을 성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칠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민 15:35)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거짓말하면 죽이라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부

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무서운 형벌이 주어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홉 가지 계명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안식일 계명은 무시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왜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쉽게 무시할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계명은 무시할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계명을 포함한 열 계명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한 생각과 거짓 복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겔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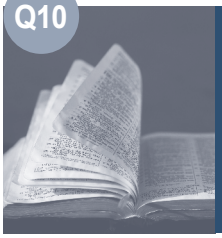
안식일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표징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안식일 계명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지구 역사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계 12:17)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는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십계명 전체를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넷째 계명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은 율법주의다."라는 생각을 심어놓았습니다. 안식일을 성별하지 않고 나무하러 가도 아무 문제없다는 사상을 온 교회 속에 뿌려 놓았습니다.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Q10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눅 16:16)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 이후에는 율법이 폐지되고 복음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예수께서는 바로 다음 절에 분명한 설명을 남기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장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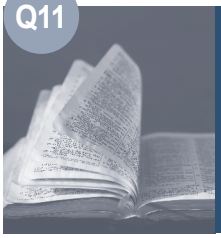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눅 16:16~17)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6절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구약성경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구약성경을 가리켜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눅 24:44~45)

예수께서 44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셨는데 45절에서는 "성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성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은 "구약성경은 침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라는 말씀의 의미는 침례 요한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고 그 후부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십계명과 제칠일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Q11



사도 바울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골 2:16)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이날인가 저 날인가 더 이상 따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질문도 오늘날 기독교회에서 크게 오해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성경에 두 가지 법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에는 십계명과 의문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폐지된 법은 십계명이 아니라 제사제도와 관련된 의문의 율법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양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지상 성소의 제사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로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마 27:50~51)

이 사건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고 죽는 순간, 의문에 속한 율법과 그 가운데 있는 절기와 월삭과 모든 의식들이 폐지되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의문에 쓴 증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버리

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골 2:14)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엡 2:15)

두 법과 두 안식일

두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이 있고, 모세가 기록한 의문의 율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성경에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한 안식일은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나오는 **제칠일 안식일**이고, 다른 안식일은 의문의 율법에 나오는 **절기 안식일들**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와 여호와의 안식일(제칠일 안식일)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칠월 십오일부터 칠 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팔 일에도 안식할 것이요"(레 23:37~39)

"여호와의 안식일"이 있고, "절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제칠일 안식일을 말하고, 절기 안식일은 유대인의 7대 명절에 속해 있는 안식일들입니다. 절기 안식일들은 십계명의 넷째 계명과는 아무

런 관계가 없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7대 절기 안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교절 안식일**(두 번, 1월 15일, 1월 21일, 레 23:7~8), **오순절 안식일**(한 번, 3월 5일, 레 23:21), **나팔절 안식일**(한 번, 7월 1일, 레 23:24), **대속죄일 안식일**(한 번, 7월 10일, 레 23:27, 32), **초막절 안식일**(두 번, 7월 15일, 7월 22일, 레 23:34~37)

모두 합해서 일년에 일곱 번 절기 안식일들이 있습니다. 절기 안식일은 제칠일 토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일이 될 수 있고 목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전체는 십자가에서 폐지된 의문의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제도와, 절기와 절기 안식일들이 폐지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들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 2:16~17)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약시대에 절기와 월삭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절기 안식일들도 십자가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적하면서 "십자가에서 제칠일 안식일 계명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유대인의 안식일에 대해서 폄론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은 큰 오해입니다.

바울의 말씀에서 "장래 일의 그림자"로 묘사된 안식일은 넷째 계명에 기록된 '제칠일 안식일'이 아니라 의문의 율법에 속한 '절기 안식일'입니다. 성소와 절기

와 절기 안식일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원형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라질 법입니다. 골로새서 2장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동물의 희생에 대한 의식법과 절기에 대한 의문의 율법이 폐지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 교회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중에는 구약시대 의문의 율법과 절기와 할례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에서 모세가 기록한 모든 의식법과 의문의 율법이 폐지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의도를 모르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골로새서 2장 16절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킹제임스 영어성경으로 보면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성경에는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안식일"이 "sabbath days, 안식일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기 안식일은 절기마다 각각 다른 날들이기 때문에 영어성경에는 "안식일들"(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나오는 제칠일 안식일은 언제나 sabbath day, 단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칠일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린양이 되셔서 돌아가셨으므로 더 이상 제사제도나 의식과 관련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 절기와 월삭과 절기 안식일들은 의미가 없다. 그런 법들은 모두 십자가에서 폐지되었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은 모두 사라져버린 그림자이다."

누구든지 편견을 버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살피는 마음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들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 2:16~17)

사도 바울은 절기, 월삭, 절기 안식일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월삭이나 절기, 절기 안식일과 같은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상홍파,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에게 드리는 권면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상홍파(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과 같은 절기들을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 역시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동안에 지켜왔던 절기나 월삭이나 절기 안식일이 모두 폐지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업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성소에서 거행된 모든 예식의 실체이

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린양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동안에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림자로 사용되어 왔던 유월절과 같은 절기들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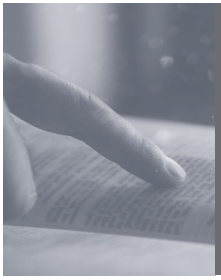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들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 2:14~16)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 의문의 율법에 묶이지 마시고, 유대인의 절기에서도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에게 주셨고, 십계명 돌비에 당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제칠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Do you know? 1

로마서 14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질문1 로마서 14장 5절에서 바울은 "날들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날들〉이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기록된 안식일을 뜻합니까? 십계명의 안식일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지켜도 될까요?

십계명에 나오는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는 계명은 인간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모든 자연계와 인간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은 항상 일곱째 날로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눅 4:16)

바울도 창조 이후 수천 년 동안 지켜져 온 안식일을 기억하여 회당에 갔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행 17:2)

바울 자신이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켰는데,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로마서에서는 "안식일을 이날 저 날 가리지 말고 마음에 정하는 대로 지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4장 5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혹은 이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롬 14:5)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모든 날이 똑같은데 가릴 것 뭐 있느냐? 각각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된다. 안식일(토요일)에 예배드리면 어떻고 일요일에 예배드리면 어떤가? 다 똑같은 날들이니 각각 자기 마음에 드는 날을 골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8)고 하신 하나님의 십계명이 무너집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것은 음식물 문제와 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1~3절까지는 음식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음식물 문제>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롬 14:1~3)

1~2절을 보면, 로마교회에 육식과 채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보다 몇 개월 먼저 기록한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같은 문제를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우상에게 바친 육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제국 전역에 우상숭배가 편만하였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제물도 음식이므로 먹어도 상관없다"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있었고(고전 8:4~6),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지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믿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고전 8:7). 이 두 무리가 교회에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고 권면했습니다(고전 10:25~27).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비슷한 문제에 빠진 로마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권

면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채식)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롬 14:21)

1세기의 로마제국은 이교적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음식물 문제는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와 로마교회에 비슷한 권면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날들에 대한 문제>

로마서 14장 1~3절까지는 음식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했고, 5절에서는 "이날 저 날"에 대하여 기술했습니다.

"혹은 이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5절)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은 십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금식일을 포함한 절기와 날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내용을 로마서에 기록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교회에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유대교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회로 개종한 유대인들이고, 다른 무리는 우상을 섬기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회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두 무리 사이에 깊은 반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개종한 이방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맹목적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할례도 절기도 무시하는 이방인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라는 불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의 눈으로 보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답답하고 구약의 절기와 의식에 얽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를 포함한 온갖 규례와 금식일, 절기들 그리고 절기마다 가려 먹는 음식들이 개종한 이방인들을 숨 막히게 했습니다.

제사제도와 절기에 따라 지키는 날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금식일, 절기와 날들에 맞춰서 먹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절기에 따라 음식물을 구별해서 먹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멸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구약의 절기와 날들과 날들에 따라 먹는 규칙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고 강요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로마교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로마서 14장입니다. 바울은

제사에 바친 음식물이나 날들에 대한 문제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 혹은 이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롬 14:1~5)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롬 14:19~21)

유대인들은 "절기 날들과 절기에 따라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방인들은 "왜 우리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가야 하는가?"라고 저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날 저 날로 반목하지 말고,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때문에 형제들끼리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도 "서로 이해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롬 15:1~2)

로마서 14장은 "절제와 원칙 없이 아무것이나 먹고 살라"는 말도 아니고, "아무 날이나 안식일로 지켜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로마서 14장은 유대인들의 <먹는 문제와 절기에 관련된 날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로 제사법과 의식과 절기는 의미가 사라졌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오랜 전통의 날들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로마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투고 불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기별이 주어진 것입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 멸망 이후에도 지켜진 안식일 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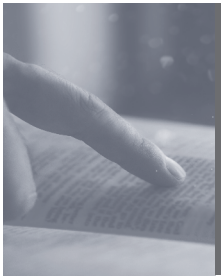
십계명의 넷째 계명, 안식일은 각 사람의 판단에 따라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도,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예루살렘 성 멸망)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마 24:19~20)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도 여전히 성도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o you know? 2

갈라디아서 4장 10절의 의미



질문2 갈라디아서 4장 10절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바울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갈라디아 4장 10절을 영어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You observe **days(날들)**, and months(달들), and times(절기들), and years(해, 연도)"(Gal 4:10)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계명의 안식일은 항상 **단수**로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히브리 원어). 그러나 갈라디아 4장 10절은 "날들"(days), **복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의 "날들"은 십계명에 기록된 제칠일 안식일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의 문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갈 4:9~11)

이 말씀은 기독교회로 개종한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이 지켜온 "날들, 달들, 연도들"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9절)라고 책망하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고 한다"(10절)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십계명의 제칠일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칠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모두 그들이 죽을 때까지 십계명대로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주교회가 중세기에 넷째 계명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시킬 때까지 안식일 계명은 서기 500년까지 지켜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파 교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규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날'(days):**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금식일과 절기 안식일을 뜻한다. 그리고 여기에 하루만 지키는 절기가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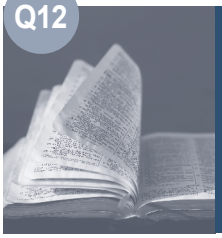
(2) **'달'(months):**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삼상 20:5, 18, 사 66:23)과 달의 반복

적 운행과 관련된 절기들, 즉 정월로서 추수가 시작되는 아빕월(출 13:4), 2월이며 꽃의 계절인 시브월(왕상 6:1), 비의 계절인 7월과 8월, 즉 에다님월(왕상 8:2)과 불월(왕상 6:38) 등을 가리킨다.

(3) **'절기'(times):** 레위기의 율법이 규정하는 3대 절기, 곧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레 23장)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여 추가된 나팔절(레 23:23~25), 수전절(요 10:22), 부림절(에 9:24~32) 등을 말한다.

(4) **'해'(years):**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레 25:2~7)과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레 25:8~55)을 의미한다.

바울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습을 지키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런 관습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전통과 십자가에서 폐지된 의식법들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복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거짓 복음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Q12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 꼭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

사랑은 법을 무시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완성시킵니다. 사랑은 값싼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원칙들을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하지 불순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하나님께서는 구름 위에 편히 앉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이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게 만들었고,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머릿속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느낌과 감정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랑과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말합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요일 5:3)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으로 계명을 무시하거나 폐지시키려고 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계명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는 마음과 동기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계명을 무거운 멍에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 5:3)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거나 힘들게 느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은 신학과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계명과 율법주의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 학생과 교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학생: 교수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 계십니까?

교수: 그럼. 잘 알고 있지.

학생: 그렇다면, 교수님은 교수님의 아내를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이나 결심하십니까?

교수: 나는 그런 결심을 전혀 하지 않는다네.

학생: 그러면 아내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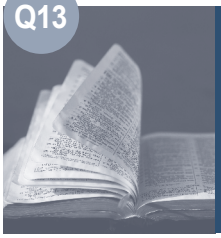
교수: 나는 전혀 노력하지 않네.

학생: 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날마다 있는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아내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명이 무거운 멍에가 되지 않을까요?

교수: 사랑 때문이네. 나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와 맺은 약속, 아내에게 지켜야 할 계명이 무거운 멍에로 느껴지지 않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 제칠일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 무거운 멍에로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4)



Q13

제칠일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공로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닌가요?

이 질문은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계명을 지킨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않는다고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과 살인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0~23)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지옥불이 무서워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동기는 감사와 충성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계명이라면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구원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과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볼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하여 광복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매해 광복절을 기억해서 지킬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광복절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복절에 태극기를 대문에 거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율

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충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율법주의로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안식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자였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이다."

이런 논리하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면 무조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이외에도 십일조, 헌금, 구제, 금식기도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적용했던 논리를 십일조와 구제에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십일조와 헌금과 구제와 금식기도를 실천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십일조와 헌금, 구제 및 금식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일조와 헌금, 구제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헌신과 희생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 23:23)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과 자비만 중요하고 율법에서 정한 십일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자비가 중요하지만, 십일조와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노력 자체를 무시하거나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박하와 회향과 근채와 같은 작은 약초와 채소에 대한 십일조까지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공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렸습니다. 그들은 번제단에서 수없이 양을 죽이고 피를 흘렸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마 23:27)

바리새인의 문제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슨 뜻인가요? 무덤 속에서 죽은 시체가 썩어서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무덤 겉에 횟가루를 하얗게 뿌려서 아름답게 화장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돈과 명예를 사랑해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겉모습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아름답게 포장한

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책망한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바울이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율법을 책망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책망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겉모습과 행위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참된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 없이 계명을 행위로만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속에서의 영적 경험과 겉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행함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약 2:14)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7)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약 2:18)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약 2:20)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약 2:22)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6)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롬 3:31)

어떻게 해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은혜 아래 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

니다. 며칠 후면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형수의 편지를 받은 대통령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마지막 순간에 죄를 용서하고 사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사형수를 사면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그 사람을 살인자로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경찰이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법을 집행하는 최고 통수권자에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형을 탕감받고 교도소를 나온 사람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법을 마음대로 범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롬 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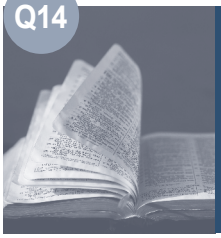
사형을 탕감받은 사람은 대통령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충성스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충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지옥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의 심령입니다. 바울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을 은혜 아래 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롬 6:1~2)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롬 6:15)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순종과 충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온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가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안식일 계명을 올바로 지키고 싶은 소원으로 가슴이 채워지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Q14

안식일은 에덴동산에서 주어졌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지킨 안식일이 지금의 토요일과 같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력을 사용했습니다. 안식일이 정확하게 어떤 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태양력과 유대력의 차이를 갖고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계산하는데, 안식일은 달력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달력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매 일곱째 날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와 경배했습니다. 셋도 일곱째 날에 예배드렸고 노아도 일곱째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태초에 시작된 제칠일 안식일이 아브라함까지 이어졌고, 이삭과 야곱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4백 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하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통해서 제칠일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갑절로 주셨고, 제칠일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제 육 일(금요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 내일(일곱째 날)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만나를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육 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 칠 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

으리라 하였으나"(출 16:22~26)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제칠일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확인했고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부터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까지 안식일은 정확하게 이어져 왔고, 예수께서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사셨을 때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누가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제칠일 안식일을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눅 4:16)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지킨 안식일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안식일과 다른 날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에덴동산의 안식일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달력으로 확인하기 원한다면,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신 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확한 안식일을 알기 위해서 바벨론의 역사와 출애굽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지키셨던

안식일은 역사적 근거와 달력의 근거로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켰던 안식일, 모세가 지켰던 안식일, 그리스도께서 지키셨던 안식일, 바울이 지켰던 안식일은 모두 동일한 날(제칠일 안식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안식일의 정확성을 가장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정확성에 대해서 달력으로 확인하기 원한다면 천문학자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제칠일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 해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일주일 제도의 기원과 계속성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간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왕립 천문대에 다음과 같은 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영국 왕립 천문대장 귀하

본인은 현재 주일 순환(weekly cycle, 7일제도)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해서 연속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럽의 여러 천문학자들이 일주일 순환이 고대로부터 깨어진 적이 없이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견해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일의 일곱째 날인 토요일이 성경 시대의 주일의 일곱째 날과 동일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문대장님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1. 고대로부터 일주일의 순환이 깨어진 적이 없다고 말하는 유럽의 천문학자들의 의견에 대한 귀 천문대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중세기에 달력이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변했던 사실이 주일 순환과

요일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3. 현재의 토요일이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제칠일 안식일과 동일합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도 없이 7일의 순환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까?

위와 같은 질의 내용에 대해서 귀 천문대의 견해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서에 대해서 영국의 왕립 천문대가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영국 왕립 천문대장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니치 천문대에 보낸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 주일 제도의 연속성은 유대교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시간, 달력의 날짜, 연대와 관련된 것을 결정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주일은 시민적, 사회적, 종교적인 주기이기 때문에 달력의 조정으로 말미암아 변경되거나 방해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주일의 7일 주기를 없애려는 어떠한 시도도 항상 유대민족이나 국가의 치열한 반대를 야기시켰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 주기를 변경시키려는 시도가 실행으로 옮겨진 적이 없었음을 확신합니다. 율리우스달력에서 그레고리달력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도 일주일의 연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져 왔습니다(1582년~1927년). R.H. 터커, 공보관"

안식일에 대한 역사와 증거는 분명합니다. 영국의 왕립 천문대의 답변처럼,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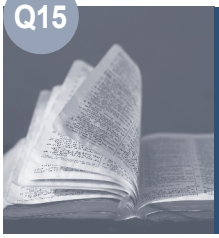
일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으며 일주일은 고대 유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단되거나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고대의 안식일과 현재의 안식일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대민족 전체가 동시에 요일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민족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제칠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유대민족 전체가 안식일을 잃어버리거나 요일을 혼동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든 것을 거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유대민족 전체가 동시에 잠을 자서 요일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중간에 바뀌거나 혼동될 경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안식일이 로마제국이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다른 날로 바뀌게 되었다면, 유대민족 전체가 그것을 대항해서 반대하고 순교를 불사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는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달력이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바뀌었지만, 아무도 달력 때문에 안식일이 변경되었음을 불평하거나 항의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영국의 왕립 천문대장의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달력은 항상 제칠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Q15 기독교회 속에 똑똑한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진리는 소수만 아는 비밀스런 말씀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안식일 문제를 찾아보십시오. 영국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찾아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제칠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천주교회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든지 안식일 문제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회가 안식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두려워서 침묵합니다.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안식일 진리가 공개될 때 닥치게 될 여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교파마다 소수의 정직한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개신교회를 세운 종교개혁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틴 루터는 안식일을 무시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유명한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Augsburg Confession)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힘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카톨릭교회는 십계명에 나타난 것과 반대로 안식일을 주의 날인 일요일로 바꾸

었다고 단언한다. 카톨릭교회에 있어서 안식일을 변경한 것보다 더 자랑할만한 예증은 없다. 그들은 십계명의 하나를 삭제했기 때문에 교회의 힘과 권세는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Luther, Your Augsburg Confession, quoted in the Creeds of Christendom, Philip Schaff, Vol. 3, p. 64)

마틴 루터는 안식일을 깨달았지만, 그 당시 그가 개혁해야 할 난제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개혁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동료인 안드리아 칼스타트(Andreas Calstadt)는 제칠일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개혁했습니다. 1524년에 안드리아 칼스타트는 '안식일과 준수해야 할 성일들에 관하여'(Concerning the Sabbath and Commanded Holy Days)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마틴 루터는 동료의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루터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렇다. 만일 칼스타트가 안식일에 대해서 더욱 많이 글을 쓰게 된다면 일요일까지도 없어질 것이며 토요일인 안식일이 기념될 것이다."(quoted in Sabbath in Scripture and History,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82, p. 217)

1535년에 쓰인 창세기 2장 3절의 주석에서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위한 날이었다.

...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남기를 원하셨다. 매 7일째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제정하신 예배를 위해 시간을 준수할 것을 원하셨다. 이것이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이다. 즉,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그에게 말하는 것이다."

제칠일 안식일에 대한 얼마나 분명한 믿음입니까? 마틴 루터가 이토록 분명한 빛을 남겨주었지만, 마틴 루터의 후예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밝은 빛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감리교회를 세운 요한 웨슬리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그날을 당신 자신의 것이라고 항상 주장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당신께 봉사하도록 그날을 예비해두셨다. 그분께서는 태양이나 달, 우주가 존속되는 한, 인간들이 '그들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보내도록 지정하셨다."(John Wesley, "A Word to a Sabbath-Breaker", in Works, Vol.11(1830 ed.), p.166)

요한 웨슬리 역시 안식일은 우주가 존재하는 한 지켜져야 할 예배일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 역시 요한 웨슬리가 전한 안식일에 대한 빛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교파가 커지고 성장하면서 더 밝은 빛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정

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교파의 성직자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양심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발간한 크리스천 앳 워크(Christian at work)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그러한 명령을 전혀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명령이라며 일요일 준수 전통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 우리가 성경을 최상의 권위로 인정한다면, 안식일 준수자들이 진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Christian at work, Apr. 19, 1883)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감리교회 신학개요에도 정직한 증언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확실성이 없으며 ... 주일 중 첫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없다."(감리교회 신학개요, Theological Compend, Binney, p.181)

또한 감리교회의 헤리스 프랭클린 랄 박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요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유대인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기라고 지시한 성경구절은 한 군데도 없다."(Harris Franklin Rall, Christian Advocate. 6. 2, 1942)

이런 분명한 기록들이 있지만,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 이런 말을 들어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진리가 감추어지고 덮여졌습니다.

침례교회의 증언을 볼까요? 침례교단의 에드워드 히스콕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지만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었다. ...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참으로 간절히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 해를 연구했는데, 내가 알고자 한 것은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기록을 성경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였다. 신약성경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었다. 안식일 제도를 토요일에서 주일의 첫날로 옮겼다는 성서적인 증거는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는다. ... 나는 일요일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한 종교적인 날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배도한 교황에 의해서 일요일이 채택되고 승인되었을 때, 일요일은 이교주의의 표시로 낙인 찍히고 태양신의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개신교회가 신성한 유산으로서 일요일 예배를 상속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인가!"(Dr. Edward T. Hiscox, author of The Baptist Manual Quoted in the New York Examiner, Nov. 16, 1890)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입니까? 성공회에서 나온 기록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3세기 동안의 기독교 저술가 중 어느 누구도 일요일 준수의 기원이 그리스도나 그분의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Sir William Domville, Ex-

amination of the Six Texts, pp.6, 7. Supplement)

이외에도 회중교회, 성공회, 그리스도 교회, 루터교회, 감독교회 등 여러 교파에서 안식일에 대한 성서적 증언을 남긴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부록 참고)

안식일 문제는 날짜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충성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 19:2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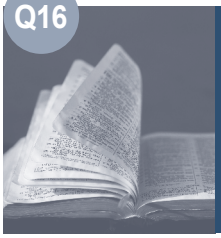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영생의 약속을 받는 '조건'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29)

기독교회에 별같이 빛나는 신학자와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 10:32~33)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부인하고 침묵한다면, 주님께서도 그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실 것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주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진리인 넷째 계명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Q16 과거에 안식일을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모두 멸망당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과거에 안식일의 빛을 받지 못했지만, 일요일을 주의 날로 생각해서 신실하게 지켰던 성도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범한 죄와 모르고 범한 불순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빛을 깨닫고 성령께서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셨지만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가 그들이 빛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빛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그 빛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경험을 의인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잠 4:18~19)

주께서 빛을 주실 때마다 빛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이 의인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광명한 빛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빛을 거절하므로 어둠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악인들은 자신이 왜 넘어지는지도 모른 채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악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

로 빛이 올 때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을 따라가는가 거절하는가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맺는 말씀

한번은 아프리카의 넓은 평원에 수백 마리의 아프리카 들소 떼들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중 한 마리의 발목을 물었습니다. 들소는 깜짝 놀라서 껑충 뛰더니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들소들도 영문도 모르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수백 마리의 들소 떼 전체가 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 뛰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뛰는 것입니다. 나만 가만히 있으면 손해볼 수도 있고 바보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뛰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눈총을 받고 따돌림 받습니다. 함께 뛰지 않는 자는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군중심리입니다. 다들 한쪽으로 달리는 것을 보니 그쪽으로 달리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군중심리입니다.

들소떼가 맹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선두에 서서 뛰던 들소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멈춰 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밀려드는 들소 떼에 밀려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뒤에서 달려오던 수많은 들소들이 함께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생각없이 움직이는 군중의 모습입니다. 안식일 진리에 순종하려면, 거대한 군중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군중의 압력을 극복해야만 "제칠일 안

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마다 세상은 들소 떼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홍수 때에도 온 세상은 들소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기별을 외쳤지만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휩싸여 진리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들소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소돔성에도 들소 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소돔을 떠나라는 기별을 주셨지만, 들소 떼들은 롯의 말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결국 소돔성 시민들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유대 땅은 들소 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교회를 믿고 따라가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예수께서 팔복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구세주를 영접하라고 3년 반 동안 외쳤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소의 정신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군중을 따라다니는 들소 떼였기 때문에 다수 속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림 때 있었던 역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대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교회 안에 거대한 들소 떼가 형성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남은 무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고,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온 세상이 들소 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가는 대신, 군중을 따라감으로써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13~14)

왜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가게 될까요? 들소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택합니다. 그런 모습이 거의 모든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소 떼가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의 들소 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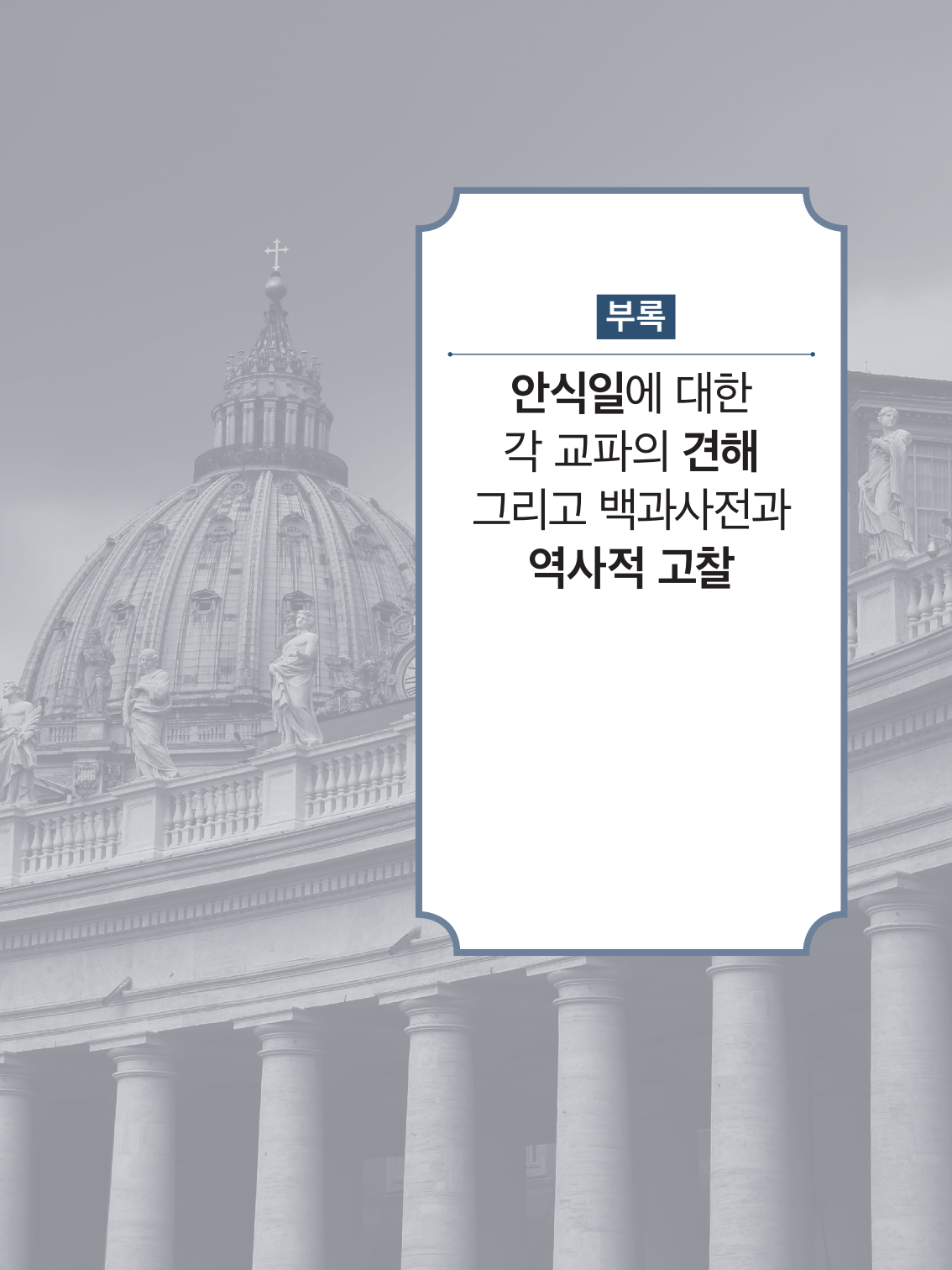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소 떼의 정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은 진리 속에만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찾는 여러분에게 크게 역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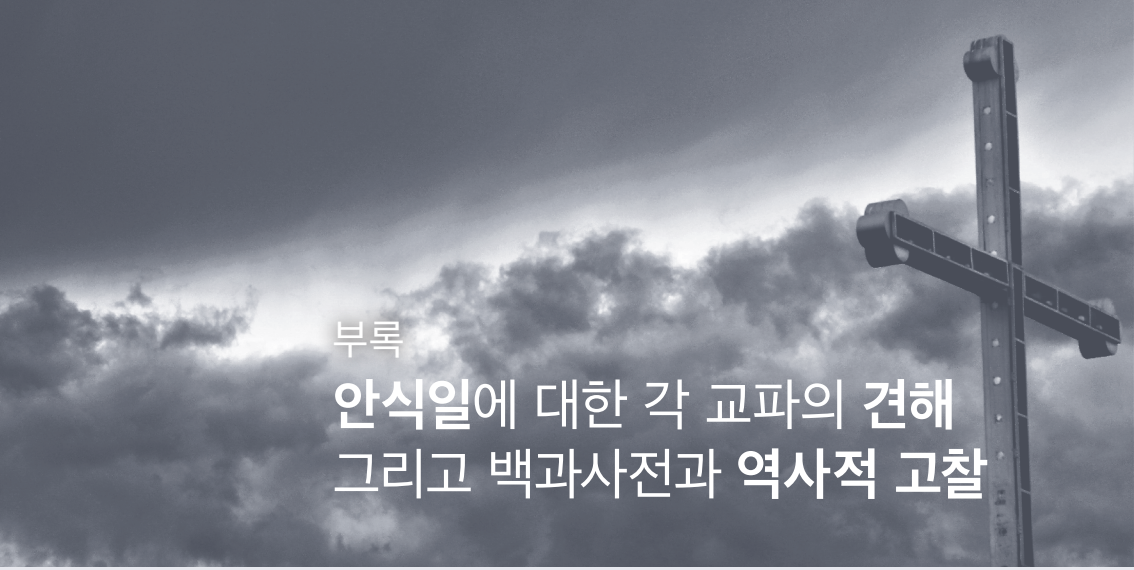
셔서 심령 속에 믿음과 충성을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록

안식일에 대한 각 교파의 **견해** 그리고 백과사전과 **역사적 고찰**



부록

안식일에 대한 각 교파의 견해 그리고 백과사전과 역사적 고찰

장로교회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그러한 명령을 전혀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명령이라며 일요일 준수 전통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 우리가 성경을 최상의 권위로 인정한다면, 안식일 준수자들이 진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Christian at work, Apr. 19, 1883)

"안식일은 십계명 중의 한 부분이다. 이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써 이미 이 제도의 영구불변성에 대한 의문에 종지부를 짓는 것이다. ... 그러므로 이 도덕률 전체가 무효화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안식일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예수님의 교훈도 역시 안식일의 영구성을 확증하고 있다."(T. C. Blake, D.D., Theology Condenced, pp.474, 475)

감리교회

"유아 세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확실성이 없으며 ... 주일 중 첫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없다."(감리교회 신학개요, Theological Compend, Binney, p.181)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지키라든지 또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기라고 지시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다."(Harris Franklin Rall, Christian Advocate. 6. 2, 1942)

침례교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지만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었다. ... 이 주제에 대해 참으로 간절히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는 여러 해를 연구하였는데, 내가 알고자 한 것은 '그렇게 바꾸어진 기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신약성경 가운데는 결코 찾을 수가 없었다. 안식일 제도를 토요일에서 주일의 첫날로 옮겼다는 성서적인 증거는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는다. ... 내게 있어서는 예수께서 삼 년 반을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때때로 안식일 질문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하시고, 그것의 여러 관점에 대해 토의하시고, 거짓 해석을 바로잡으시고, 결코 그날의 변경에 대해 암시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부활 후 사십 일 동안에도 그러한 것을 알리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이 설명될 수 없는 듯이 보인다(만일

십자가에서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면 분명히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는 예배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이다. - 편집인 주). 또한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도록 보내신 성령께서도 이 문제를 취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며, 세운 교회를 가르치고 권면한 영감 받은 사도들까지도 이 주제에 대한 논의조차 전혀 시도하지 아니한 것이다. 물론 나는 일요일이, 우리가 기독교 교부들이나 다른 출처로부터 배운 대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한 종교적인 날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배도한 교황에 의해 채택되고 승인되었을 때, 이교주의의 표시로 낙인 찍히고, 태양신의 이름으로 명명된 그날을 개신교주의가 한 신성한 유산으로서 상속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인가!"(Dr. Edward T. Hiscox, author of The Baptist Manual Quoted in the New York Examiner, Nov. 16, 1890)

그리스도제자교회

"창조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안식일은 변경될 수 없다.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조리 허황된 이야기다. 만일 누군가 때와 법을 변경했다면 나는 그의 이름을 적그리스도라고 당당히 말한다."(알렉산더 캠벨, The Christian Baptist, Feb.2, 1824, Vol.1 №. 7)

회중교회

"아무리 우리가 일요일을 엄숙하고 굳건하게 지킨다고 하여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특별하고 거룩한 계명으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다. 일요일을 준수하면서 계명을 지킨다고 내세울 수 없다."(Ten Commandments, W.D. 데일 박사)

"신약성경에는 첫째 날(일요일)에 대한 아무 규례가 없다는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Buck's Theological Ditionary, p.403)

"성경 상에는 주일 중 첫째 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써 지키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Orin Fowler, A.M., Mode & Subjects of Baptism)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그들의 권위로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대체했다고 가르치는 오늘날 기독교회의 관념은 성경상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Dr. Lyman Abbott, Christian Union, 1. 19, 1882)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일요일)은 성경적이 아니며, 초대 교회 당시에도 안식일로 불려지지 않았다."(Dwight's Theology, Vol. 4, p.401)

루터교회

"주일(일요일)의 준수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계명에서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은 다

만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Augsburg Confession of Faith)

"그들(천주교회)은 성경과는 반대로 안식일이 일요일, 즉 주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안식일을 바꿔버린 것보다 더 참람된 교만은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십계명의 하나를 삭제해버리기로 할 만큼 그 교회의 권위와 세력은 대단하다."(마틴 루터, Augsburg Confession of Faith, Art. 28, Par. 9)

감독교회

"다른 모든 축제일처럼, 태양일 축제(일요일, festival of Sunday)도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다. 그것은 사도들의 거룩한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며, 초기 기독교회가 안식일의 법을 일요일로 옮김으로써 생겨난 것이다."(the History of Christian Religion and Church, p.187, 감독교회의 대변인 닌덜)

크리스천교회

"일요일을 주일로 제정한다는 성경상의 직접적인 당위성은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다."(Dr. D. H. Lucas, Christian Oracle, Jan. 23, 1890)

"주일 중 첫날을 보통 안식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 주일 중 첫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른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한 곳도 없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변

경한 것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적이 성경에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그러한 변경을 암시한 곳이 전혀 없다."(첫째 날 준수, pp.17, 19)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제정함으로써 사실상 넷째 계명을 파기해버린 것이다."(Dr. N, Summerbell, 기독 교회사, 제3판, p.415)

성공회

"일요일은 로마의 태양일인데, 이는 이날이 태양신 숭배를 위해 바쳐진 날이기 때문이다. '태양'은 라틴예배 형식에 있어서 '의의 태양'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신약성경상 예배일로 지키라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그것을 지키라고 명해진 적도 결코 없다."(Schaff Herzog, Encyclopaedia of Religious Knowledge, 1891 Edition, Vol. 4, Art. Sunday)

"첫 3세기 동안의 기독교 저술가 중 어느 누구도 일요일 준수의 기원이 그리스도나 그분의 사도들에 의해서라고 말하지 않는다."(Sir William Domville, Examination of the Six Texts, pp.6,7. Supplement)

"신약성경상에서는 일요일에 일하지 않았다는 아무런 언급이나 암시도 찾아볼 수 없고, 일요일 휴일화에 대한 어떤 신성한 규정도 없으며, 그 외 성회례(수난 주일의 첫날

로서 머리 위에 재를 뿌리는 관습) 수요일 및 사순절 등도 일요일 준수와 마찬가지로 전혀 근거 없는 전통일 뿐이다."(Canon Eyton, The Ten Commandments, pp.52, 63, 65)

"신약성경 중에서 매주의 휴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다는 명령이 있는가? 아니다. 전혀 없다."(그리스도인 교리 요람, p.127)

영국 교회

"주일의 제칠일은 의무적인 종교적 준수를 요구할 권리를 상실했으며 그 특권은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 없이 첫째 날로 옮겨졌다."(Wiliam E. Gladstone in Later Gleanings, p.342)

"신약성경 가운데는 일요일에 일하지 말라는 어떤 말이나 암시가 없다. 일요일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 성회일(Ash Wednesday, 사순절의 첫날, 천주교에서 참회의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뿌림- 역자 주)의 준수도 일요일 준수와 정확하게 동일한 기초에 서 있다."(Canon Eyton in Ten Commandments, pp. 62, 63, 65)

백과사전이 말하는 안식일과 일요일

"일요일이란 것은 이방인들이 주중 첫째 날에 붙인 이름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태양을 숭배하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 제 칠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날이다. ...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을 거룩히 지키기를 요구하신다. 이 계명은 전 우주적이며 영구적인 의무이다. 창조주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날이 다른 어떤 날보다도 뛰어난 날이며 그분의 특별한 사랑이 함께하는 날임을 의미한다. ... 그렇다면 사람과 그를 둘러싼 세계가 존재하는 한 초기 안식일 계명도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Eadie s Biblical Cyclopaedia, 1872 Edition, p.561)

"소크라테스의 행적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의 공중예배는 토, 일 양일에 콘스탄틴노플에 있는 교회들에서 행해졌다. ...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주중 제칠일에서부터 제일일로 옮겨져서, 제일일이 그리스도인의 주일 혹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식의 표현은 훨씬 후에 가서야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 일요일을 법적인 휴일로 지키게 된 최초의 공인은 주후 321년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이며, 이로 인해 모든 법정, 주민, 상점들이 일요일에는 쉬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외를 허용하였다. 또 주후 363년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는 ...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일(일요일)을 지키도록 강권하였으며, 그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도를 고수해왔다."(Encyclopaedia Britannica, 1899 Edition, Vol, XXIII p.654)

"종교적이거나 국가적이거나를 막론하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법제화한 최초의 법령은 의심할 여지없이 주후 321년 콘스탄틴의 칙령에 의한 법령이다."
(Chamber's Encyclopaedia, Article "Sunday")

역사적 고찰

"콘스탄틴은 일요일 준수를 위한 첫 번째 법령을 만든 사람인데, 그는 로마제국 전체를 통하여 정규적으로 축하되어야 되는 날로서 일요일을 지정하였다."(Britannica encyclopedia)

"미뜨라 신(태양 신)은 '무적의 태양'이고, 태양은 '충성스런 별'이었기 때문에, 미뜨라 교도들은 지상에서 미뜨라 신의 대리자로서 일할 수 있는 왕을 찾게 되었다. ... 그들의 눈에는 로마황제야말로 그들이 찾는 참된 왕으로 보였다. 그 당시, 그리스도 교회와 날카로운 대립 관계에 있던 미뜨라 교도들에게 있어서, 로마황제는 거룩한 신의 은총을 지닌 자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군대와 민간 기관에서 일하고자 하는 미뜨라 교도들의 지원이 넘쳤다. ... 이러한 분위기는 그리스도 교계로 하여금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며, 태양의 출생일인 12월 25일을 준수할 것에 대한 미뜨라 교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Light of Modern Knowledge,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헬라어 교수인 길버트 머레이 박사)

"이방인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자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가장 거룩한 날이었다.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기독교회는 일요일을 쉬는 날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도 당연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이방인들의 예배일을 그리스도 교회의 예배일로 채택하든지, 아니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배일을 안식일로 바꾸도록 해야만 하였다. 기독교회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예배일을

안식일로 바꾸도록 만드는 것은, 이방인들을 공격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교회 자신에게도 거침돌이 되는 일이었다. 교회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예배일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좀 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Sunday and Christian Sabbath, p.169, 윌리암 프레드릭 박사, The North British Review, Vol. XVIII, p.409)

"이 불명확한 시기 동안에 일종의 신정제도 같은 관념이 당시 그리스도인 사회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인기 있고 널리 알려졌던 이교 다신주의 집단 및 세라피스-이시스-호러스(생산이나 힘을 상징하는 소와 태양을 숭배하는 애굽의 다신교의 일종- 역자 주) 무리들 사이에 상당히 혼합되어 있었던 것 같다. 전술한 그런 이교주의로부터 도래된 일요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대신 그들의 중점적인 예배일로 받아들인 것 같다."(H. G. Wells, The Outline of History(New & Revised), p.543)

"맨 처음에 안식일을 대치하는 일은 복종을 강요하는 어떤 급격한 사건으로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우 서서히 발전해갔으며, 거의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채, 그 일을 주동하여 추진한 사람들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잠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William B. Dana, A Day of Rest & Worship, p.174)

"우리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가 일곱째 날 대신에 첫째 날을 지키는 이유는 어떤 계명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일요일 예배 전통은 국가

가 일요일을 법적 휴일인 휴식의 날로 정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AD 321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명백한 계명에 근거해서 준수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Ten Rules For Living, 클로비스 챠펠)

문제의 핵심

안식일 문제의 참된 핵심은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예배일을 변경했다는 그 사실이 아니다. 진정한 핵심은 날짜 문제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오래전에 하늘에서 큰 전쟁을 일으키고 쫓겨난 반역한 한 천사, 루스벨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공평치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에 아담과 하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문하면서 "결국 나무는 나무고 열매는 열매다. 참으로 그것이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현혹되어 우리의 첫 시조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 가운데로 던져 넣었다. 언뜻 보기에 에덴동산에서 문제의 핵심은 나무나 과일의 문제였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 이상의 것이었다. 본질적 핵심은 창조주와 사람의 관계였다. 이 사랑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온전히, 의심 없이 신뢰하도록 인도하였다. 그런데 우리 시조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림으로써 그들의 주인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의 핵심은 날짜 문제 이상의 것이

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요, 충성의 문제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은 불타오르게 된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친구나 가족이나, 심지어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종교개혁의 선봉자인 마틴 루터가 받았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27~29)

Online Bible College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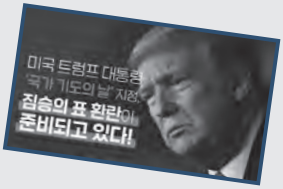
복음과 예언에 대한 10개의 성경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영상이 편집되었습니다.

바이블칼리지의 특징

전 과목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편리한 시간에,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만큼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이블칼리지에서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 로마서 강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예정론, 세대주의, 이스라엘과 제3성전, 비밀휴거, 성소와 심판 등
- 지옥불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형벌이 이루어질까요?
- 사람이 죽으면 1분 후에 어떻게 될까요?
- 성경은 지구 역사 최대강국,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 "짐승은 누구일까요? 짐승의 표는 무엇이고, 베리칩과 666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에서 **마지막사명 앱**을 다운받으면 바이블칼리지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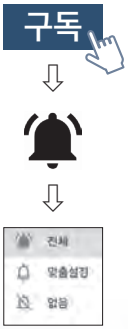
- 수강료 : 무료

아침예배 채널을 구독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사 50:4)

| 천사의 아침방문 방송화면 |

아침예배 유튜브 채널과 웹사이트에서 **<천사의 아침방문>**을 방송합니다. 천사의 아침방문은, 앤드류강 목사님과 선교팀이 한국시간으로 매일 새벽 6시와 아침 9시에 드리는 말씀묵상입니다.



새벽 6시: 아침예배 영상 (장소: 유튜브 아침예배 채널)

아침 9시: 생방송 예배 (장소: 아침예배 유튜브 채널과 웹사이트 동시 송출 www.lastm.net)

말씀묵상교재: 365일 말씀묵상집

순서자: 앤드류 강 목사님과 선교팀

마지막사명에서 하는 아침말씀묵상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YouTube KR 아침예배 or 천사의 아침방문

• 정가 18,000원(한국) / 18.00 달러(미국) • 문의 한국 010-8107-7780(문자) / 미국 706-988-4090(문자)

인터넷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면
마지막사명 선교팀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

1. 유튜브에서 마지막사명 채널로 오세요
(구독 -> 알림설정 -> 전체 알림)

2. 마지막사명 웹사이트로 오세요(www.lastm.net)
(인터넷 교회 -> 교인등록 -> 채널 추가)

3. 카카오톡
(카카오톡 실행 -> 마지막사명 검색 -> 채널 추가)

• 문의 한국 010-8107-7780(문자) / 미국 706-988-4090(문자)